



*주영실업

'MySuitT.', 커스터마이징과 디지털 패션의 만남 3D 가상 샘플과 디지털 패브릭 활용한 디자인 맞춤

“맞춤복 시장,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마이슈트티(MySuitT.)’는 디지털 패션 기술을 커스터마이징과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도 맞춤을 의미하는 Musuit와 Tech의 T를 결합해 ‘마이슈트티’로 정했습니다.”

이재혁 주영실업 대표는 패션 전문가가 아닌 방적 기업의 연구원 출신이다. 10여년 이상 차별화된 원사 개발에 주력해 온 이재혁 대표가 2021년 창업을 목표로 선택한 아이템은 여성 맞춤복 브랜드 ‘마이슈트티’다.

이재혁 대표는 국내 남성 맞춤 시장은 결혼정장을 기반으로 꽤 많은 브랜드가 발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 맞춤 시장은 눈에 띄지 않는 브랜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있다면 중장년층을 위한 엘레강스한 맞춤 여성복이 주였다. 그는 젊은 여성의 개인 취향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마이슈트티’를 런칭했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디지털 패션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했다.

이재혁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하려면 한 아이템 당 수십벌의 샘플 디자인이 필요한데,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다. 이 때 생각한 것이 3D 가상 샘플이다. 주력 아이템만 실제 샘플로 개발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은 3D 가상 샘플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소재 역시 3D 디지털 모델로 개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자인 선택에서 완성품까지 맞춤 15일 완성

실제 ‘마이슈트티’ 매장을 찾은 고객은 매장에 원하는 디자인이 없을 경우 키오스크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동일한 소재로 코트, 원피스, 스커트 등 다채로운 변형 디자인이 있다. 소재 변형을 원하면 다른 소재로 제작된 디자인을 가상 샘플로 즉시 볼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쉽게 디자인을 선택하고, 바로 완성품 제작에 들어가 15일이면 나를 위한 유일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3D 디지털 패브릭 및 베투얼 샘플을 제작하는 데는 패브릭 다이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마이슈트티’는 지금은 기술 개발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 신체 스캔을 통한 가상 착장 서비스 도입과 이재혁 대표의 전공을 살려 독자적인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을 수 있도록 아동복, 핸드백 및 슈즈 등 여성 정장과 어울릴 수 있는 맞춤 아이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3D 베투얼 패션 기술은 의류 수출 업체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내수 패션 브랜드들도 가상 샘플 개발 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객들의 1:1 니즈에 커스터마이징해주는 맞춤 분야가 정말로 3D 가상 샘플 제작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PECIALTY

- 인스타그램 mysuit_korea
- 블로그 mysuit-t
- 웹사이트 linktr.ee/mysuit_korea, mysuit.modoo.at